

## 끊임없는 시설투자와 연구개발로 업계 선도

과당경쟁 지양, 수익성 있는 기업 경영으로 발전



권 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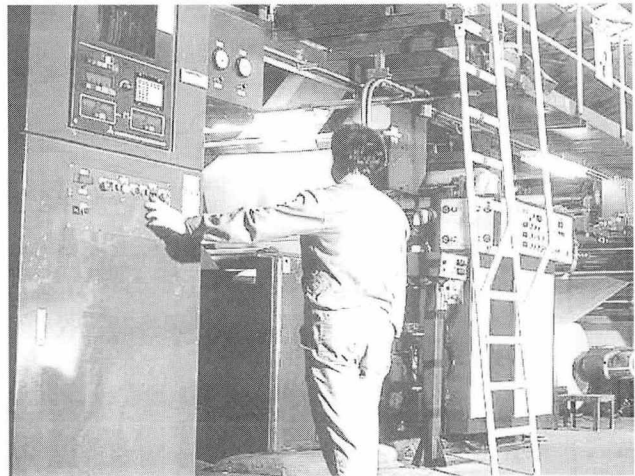
(주)광신탄지 대표이사

국내 수요 정체로 인해 골판지포장산업의 신수요 창출과 변혁이 요구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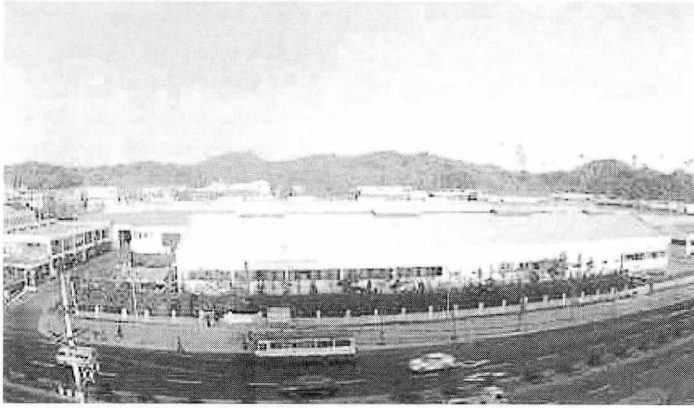
1972년 약 1.6억㎡에 불과했던 골판지 포장수요량은 1970년대에는 1차 석유파동으로 인하여 심한 수급 불균형을 보였으나 2차 석유파동 전까지 수출 100억 달러 달성 등 수출호조에 힘입어 골판지 포장산업도 약 20%의 증가율을 보이며 호황을 누렸다.

1980년대 초 사회, 경제 전반에 걸친 침체로 인해 상당수의 골판지 제조업체가 도산되자, 골판지포장산업 업계는 불황극복 대책의 일환으로 생산설비의 자동화, 고속화를 통하여 변화를 꾀하고 있다. 그동안 만성적인 공급과잉에 시달려 온 골판지 산업계.

금번 골판지상자를 이용한 배추포장화사업이 시범 실시



▲ 최신 설비를 보유하고 발전하는 (주)광신탄지



▲ 경기도 안산시 반월공단에 위치한 (주)광신판지

된데 이어 무·배추·딸기·수박 등 15개 농산물에 대해서도 원산지 표시가 추가됨에 따라 골판지 포장업체는 '신수요'로 호황을 기대하고 있다.

농림부와 산지유통인중앙협의회 및 골판지업체가 배추 포장화사업을 도입, 자율적으로 실시하는 등 업계 신수요 창출이 활발한 현재, 대규모 고속 생산라인과 자동화 시설을 갖추고 골판지 업체를 선도하고 있는 (주)광신판지(대표이사 권영)를 찾았다.

경기도 안산에 자리하고 있는 (주)광신판지는 1983년 5월 법인설립 된 이후, 골게이터 1호기와 2호기를 보유하고 발전해 왔다.

1990년대 들어 Mitsubishi FLEXO FOLDER GLUER 3

도인쇄기와 ASAHI PLATEN DIE-CUTTER를 증설하면서 설비와 기술을 두루 갖추며 발전해 온 (주)광신판지는 1998년 지금의 권영 대표이사의 취임으로 발전의 박차를 가하게 된다.

“최고의 품질을 지향하는 환경 친화적인 기업으로서 끊임없는 시설투자와 연구 개발을 계속하여 고객만족을 실현하는 것이 고객에게 보답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히는 권영 대표이사.

(주)광신판지는 1999년 FLEXO 4도인쇄기를 증설하고 2002년에는 골게이터 2호기 Dry-End, 2003년 골게이터 1호기 설비를 교체하는 등 지속적으로 시설투자에 주력했다. 또한 2000년 ISO

9002 인증을 획득하고, 2003년 KSA/ISO 9001 품질보증시스템 인증을 갱신했으며 지난 해 7월 한국표준물류인증 획득하는 등 최고 품질, 최고 서비스의 경영이념을 실천해, 대외적으로 그 위치를 인정받았다.

현재 (주)광신판지는 원단사업부와 상자사업부를 두고 원지와 골판지를 일괄 생산하고 있다.

원단사업부는 최신설비의 골판지 생산기계(corrugator)를 보유, 고속·대량생산이 가능하다.

또한 SLITTER SCORER를 RAZOR KNIFE TYPE으로 교체했으며 세계적 기술을 인정받고 있는 호주 BRENTLY社의 골판지 접착 및 건조장치인 CONTACT BAR SYSTEM과 THERMO BAR SYSTEM을 도입함으로써 접착력과 압축강도를 높여, 생산성을 향상시켰다.

(주)광신판지가 생산하고 있는 이중양면골판지는 의류, 섬유제품, 의약품, 농산물(과일), 전자제품 등에 적용이 가능하며, 양면골판지는 캔

## KWANGSIN

류, 라면, 농산물(야채류), 내 포장 및 날포장용 등으로 탁월하다.

현재 반월공단 뿐만 아니라 제주 공장을 보유하고 있는 상사사업부는 최신형 3~4도 인쇄가 가능한 골판지 상자 제조기를 보유해 고객의 다양한 인쇄사양을 미려하게 고속 생산할 수 있고 각 공정별 시스템의 유기적인 연결로 인해 품질 고급화를 추구하고 있다.

특히 (주)광신판지는 수분 측정기, 파열강도기, 압축강도기, 상자압축강도기를 보유하는 등 품질관리시스템을 갖추고 고객의 요구 및 서비스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권영 대표이사는 “미국이나 일본 및 EU국가들의 일부 기업은 자체적인 연구소를 운영하여 포장 수요에 따른 연구 활동을 하고 있는 것에 반해, 국내 골판지포장 개별기업으로서 기술정보 수집과 활용 역량이 부족하여 연구개발에

어렵다”고 토로한다. 그는 “업계 발전을 위해서는 제품 포장을 위한 기능적 설계, 기능적 디자인과 포장 이외의 용도 등을 개발 연구하고, 개발된 설계, 디자인 및 새로운 용도개발을 공유할 수 있는 포장연구단체나 연구기관의 존재와 지원이 필요하다”며 골판지포장산업의 경영 개선을 강조했다.

반월공단에 골판지 협동화 공장을 설립한지 23년, 골판지 원지 전지종을 생산하는 대양제지와 신대양제지를 모체로 대규모 고속 생산라인과 최신 자동화 시설을 갖춘 국제수준의 골판지 전문회사로 성장하게 된 (주)광신판지.

권영 대표이사는 “골판지와 골판지원지는 시장 확대와 새로운 제품개발에 협력하여야 할 공존의 존재이므로 공동으로 골판지의 기술적, 경제적 상호보완적 책임을 공유해야 할 상대”라고 강조한다.

지금까지 골판지포장업체와 골판지원지업체가 공급자와 수급자로서의 관계로 지속되어 왔으며 상호보완적 의미를 상실하고 골판지원지와 골판지로 이분법적인 관계를 지속해왔다는 것. 그는 두 업계가 공동으로 골판지포장 관련규격 합리화, 골판지원지의 단순화, 골판지제품의 원지배합 단체규격화 등을 정착화시킨다면 모든 면에서 생산성과 균일한 품질로 골판지포장 시장을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라 제안했다.

골판지 업계에 산적해 있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환경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과당경쟁을 지양, 수익성 위주의 기업 경영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권영 대표이사.

최고의 품질과 연구개발로 발전하고 있는 (주)광신판지의 발전을 기대해 본다. ☐

박초혜 기자